

# 손에 잡히는 암.호.정.책

| 암호정책 수립 기준 설명서 발간 |



방통위와 KISA가 지난 12월 '암호정책 수립 기준설명서'를 발간했다. 약 30페이지로 구성된 이 설명서는 암호정책 기준, 세부기준에 대한 상세해설, 암호정책 모범사례 등을 수록,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요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설명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주요 정보자산을内外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암호제 품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한 암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암호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기업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심사하는 ISMS 인증기준에서도 명시돼 대상기업의 암호정책수립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암호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기업들은 자사의 암호정책 수립과정에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요 정보자산의 노출위협이 발생하는 등 암호정책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간된 '암호정책 수립 기준설명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제도 및 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세 암호정책 수립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No	통제목적	통제내용	점검항목	설명
9.1	암호정책	암호사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암호정책이 있는가? 암호정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li> <li>• 경우에 따른 암호화 방법 또는 필요한 신뢰정도</li> <li>• 안전한 암호 프로그램의 배포관리</li> <li>• 전자서명, 부인봉쇄, 서비스의 신뢰정도</li> </ul>	적절히 승인된 문서화된 암호정책(지침)이 존재하여야 한다. 암호정책에는 어떤 경우에 암호화 방법을 사용할 것 인지를 명시하고 각각의 경우, 필요한 암호화의 방법과 수준(강도)을 명시하여야 한다. 채택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성을 위한 암호화</li> <li>• 전자서명</li> <li>• 부인봉쇄 서비스의 사용</li> </ul>
9.2	암호사용	암호정책에 따른 암호사용 시 적절한 알고리즘의 유형, 신뢰성 및 키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암호정책에 따라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알고리즘과 키 길이를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암호정책에는 전자서명 또는 부인봉쇄 서비스 시 암호화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행하고 있는가?	암호정책에서 확인한 대로 직원들이 각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알고리즘과 적절한 키 길이로 암호화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전자서명이나 부인봉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암호저액에서 확인한 대로 직원들이 각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알고리즘과 적절한 키 길이로 암호화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9.3	키 관리	암호 키에 대한 관리지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필요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암호 키에 대한 관리지침과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침, 절차,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서의 암호통제 항목 예시

## “가상의 기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소개”

총 3개의 Part로 구성된 해설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암호정책 수립 기준 및 해설 부분, 종최 및 책임사항, 암호 관리, 키 관리, 문서 및 기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암호정책 수립 기준에서는 총 17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제도 및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항목 기준뿐만 아니라, 각 기준의 필요성을 비롯해 암호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권고 암호알고리즘, 안전한 패스워드 기준 등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 소개했다는 점도 이번 해설서의 특장이다. 이와 함께 기업 및 기관이 실제 암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기업을 설정해 암호정책 수립기준을 소개함으로 일반적인 해설서가 갖고 있는 딱딱한 대신,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해설서는 보안 컨설팅, 안전진단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체 및 인증 심사원 등에게 배포됐으며, ‘KISA 홈페이지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자료실’에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해설서 발간에 대해 KISA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암호정책 수립기준 설명서와 함께, ‘암호이용가이드라인’,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가이드’ 등을 함께 참고한다면 기업은 더욱 강력한 암호정책을 수립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